



유통업계
외국인 소비가
실적 갈랐다
L1



Life

한국가스공사
홍익락 사장 취임
“에너지 미래 연결”
L2



오크통에 담긴 예산 사과술... K-드링크의 세계화 꿈꾸다

Q 르포

예산사과와인 양조장

서양 증류주 기법에 특산물 접목
사과 와인·브랜드로 세계 무대 조준
외국 인플루언서, 한국술에 관심

여름의 정점, 충남 예산의 한 양조장·증류소에 외국인 인플루언서 무리 대어섯이 보였다. 번역기 귀에 꽂고 한국 사람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때로 까르륵 웃고 고개도 자주 끄덕였다. 청중의 반응대로, 마이크 잡은 정제민 예산사과와인 사장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양조장 내 행사장 입구에는 출시된 제품과 그간 받은 상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십수 년 전 영국 애버딘을 찾았을 때가 생각났다. 익숙치 않은 스코틀랜드인 발음과 마주했고 현장에 통역사도 없던 터라 자의적 해독에 의존해야 했다. 스카치위스키, 싱글몰트 등의 엄격한 기준을 강조해 말하는 것으로 들렸는데, 지금의 기억으로 그 현지인의 입가와 논매에 묻어난 자신감만이 남아 있다. 삼태인을 강요하던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주류 해설가, 제주 하는



충남 예산 농업사회법인 예산사과와인의 정제민 사장이 사과브랜드의 숙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쌀로 만든 막걸리 소개하던 성읍의 음식점 주인장도 모두 같은 선상에 있었다.

예산사과와인은 위치가 좀 다르다. 고유의 소줏고리 방식이 아닌, 꺾꽂이의 서양 증류주 만드는 기법에 지역 특산품을 접목한 사례다. 정제민 사장은 오크통이 켜켜이 쌓인 곳으로 안내했다. 사과와인을 증류해 숙성 중인 사과브랜드를 추출해 권했다. 프랑스 칼바도스와 견줘, 맛에 손색이 거의 없었다. 2년쯤 전 지인이 노르망디 몽생미셸 수도원 다녀오는 길에 사 왔으며 건넌 칼바도스, 사과 브랜드, 이른바 '사과 코냑'이다.

포도 재배에 기후가 안 맞아 사과로 술을 빚는다는 노르망디 지역. 포도 증류한 실제 꺾꽂이와 달리, 끝없는 냄새 없애는 게 관건이고 기술이라는 사과브랜드. 그 기법 따온 한국의 정 사장. 그의 술엔 예산 사과만의 풍미가 담겨 있었다. 이제 프랑스 서북부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K-드링크의 해외 진출, 나아가 세계화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동서양 식문화의 결합, 유연한 사고가 어찌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지역 내 각기 다른 품종의 사과를 골고루 주문해 쓰는 만큼,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예산사과와인 양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그만이다. 이곳 양조장을 방문한 남미와 유럽, 중앙·남아시아태생의 인플루언서들. 오크통에서 뽑은 감칠맛에 한결같이 만족하는 표정을 내보였다. 이들은 예산 사과브랜드에 더해 다른 한국 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은 7월29일, 사실 전국 각지의 전통 술 장인들이 예산사과와인 양조장에 한데 모여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돼, 자신들의 상표를 국내외에 알리는 행사 자리였다. 콜롬비아에서 온 다니엘라 폰세카(26) 씨는 "한국 술이 이렇게 다양한 원료

와 맛을 지녔는지 미처 몰랐다"며 "앞으로 한국 술 홍보인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조장 내리쬐는 햇살이 따가운 정오 무렵이었다. 정 사장의 아내분은 70여 명 참석자 모두에게 결들임(페어링) 식사·안주를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독일식 돼지고기, 감자, 파스타에 사과브랜드가 꽤 잘 어울렸다. 해외 객지살이 경험이 있는 정 사장. 손님들과 소통이 가능한 건 덤이다. 연중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했다. /예산(충남)=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영화관으로 피서가자”... 오감만족 재미 풍성

스파이더맨·오디세이 등 대작 개봉
특별관 몰입감에 여름 이벤트까지
굿즈, 체험형 공연 등 즐길거리 가득

여름 휴가철과 본격적인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다채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극장가가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기술 특별관의 압도적인 몰입감부터 이색 디지털, 소장 가치 높은 굿즈, 그리고 공간을 허문 이머시브 공연까지 관람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풍성한 즐거움이 가득하다.

◆ 블록버스터부터 특별관까지

8월 극장가는 폭염을 날려버릴 스펙터클한 기대작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먼저, '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는 할리우드 최초 'Shot for SCREENX' 적용 작품으로 3면 스크린과 4DX 효과를 통해 뉴욕 상공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속도감을 선사한다.

영화사 최초 전면 IMAX 70mm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웅장한 자연과 전투 스케일을 극대화한 '오디세이'도 만날 수 있다. 오

디세우스가 10년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오케이 마담'은 초호화 크루즈를 배경으로 시원한 해양 액션과 유쾌한 코미디를 결합해 SCREENX와 4DX 등 다양한 특별관 포맷으로 관객을 찾는다.

이밖에도 '호프', '사랑의 하수관: 고래 보석의 전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사별 프로모션 포함)는 관람객들을 위한 실속 있는 혜택과 이벤트를 이어간다. CGV는 오는 8월 23일까지 대화차 관람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스 쿨 타워형 선풍기, 영화관람권, 매점 쿠폰 등을 증정하는 대규모 썸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CREENX 등 기술 특별관 관람객을 위한 전용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시원한 극장 피서의 재미를 더한다.

◆ 시즌 디지털과 '소장 욕구' 굿즈

극장은 이제 영화만 보는 공간을 넘어 트렌디한 미식과 쇼핑을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진화했다. 롯데시네마는 무더위를 식혀줄 수박주스, 망고·사인머스켓 사

베트, 밀크컵빙수 등 시즌 디저트를 비롯해 멕시코나치킨과 손잡은 닭강정 등을 선보이며 '극강스(극장+바캉스)'의 맛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2030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굿즈 라인업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품질 대란을 일으켰던 '킵킵 키링' 시리즈의 2차 판매를 비롯해 '극장관 도라에몽', '미니언즈 & 몬스터즈', '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 등 인기 캐릭터 IP를 활용한 파우치, 장패드, 파규어 등이 일상 속 덕질 트렌드를 극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 무한 변신...독창적인 체험도 선사
상영관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띈다. 롯데컬처웍스의 몰입·체험형 공연 브랜드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 로비 등 영화관 인프라를 활용해 관객이 직접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독창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올 여름,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극장에서 시원하고 특별한 휴가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원선선 기자 tree6834@

격동의 시기 거친 서울의 도시·건축 기록

파괴와 성장이 교차하는 '모순의 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건축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김성홍 명예교수가 세계적인 건축·도시 전문 출판사 'Park Books'에서 펴낸 'Seoul Urban Architecture: Rising from the Crushing Bowl(서울 도시 건축: 절구통에서 튀어 오르다)', 교육자이자 건축가의 시선에서 본 40여 년 서울의 모습을 담은 회고록이자, 모순을 파고든 문화사이며, 도시 문제를 짚는 비평서다.

이 책은 서울을 통해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을 꿰뚫어 본다. 유교적 질서 위에 세워진 수도 서울은 격동의 시기를 거쳐 거대하고 수직적인 도시로 급성장했다. 서울이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그 이면에는 파괴와 아픈 역사가 반복적으로 쌓여왔다.

책은 총 4부로 구성했다. 'Surveying the Landscape'는 수도 서울의 탄생부터 식민지 근대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역사적 격변을 겪은 서울의 역사를 추적한다. 2부 'Realities of Urban Planning'은 비약적 성장이 불러온 도시의



Seoul Urban Architecture
(서울 도시 건축: 절구통에서 튀어오르다)
김성홍 지음 / 파크북스

현실을 보여준다. 3부 'Searching for an Architectural Identity'는 한국 고유의 건축적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시도를 조명한다. 마지막 'Rising from the Crushing Bowl'은 '모순의 도시' 서울의 가치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책의 학술적 의미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근현대사가 각국의 도시와 건축 문화에 끼친 영향을 비교·분석한 최초의 영문 단행본이라는 점에서, 한국 도시·건축 관련 영문서가 여전히 드문 상황에서 국내외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이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메트로 한줄뉴스



▲일본 구마모토 규모 7.1 강진 피해... 사망자 28명으로 늘어 /사진 뉴시스
▲트럼프, 사우디 국방장관 긴급 회동...이란 대응 조율

▲BMW, 독일서 8000명 감원 착수...中 판매 부진 등 배경
▲마라톤 2시간 벽 넘은 사웨, 12월 한국 방문...동호인과 함께 달린다

▲FIFA, '정치적 현수막·난투극' 아르헨티나 징계 절차 밟는다
▲이정후, 2경기 만에 멀티히트에 3타점 '펄펄'...밀워키전 16-3 대승 기여